



보도시점 2026. 7. 21.(화) 12:00 배포 2026. 7. 21.(화) 09:00

데이터로 본 동남권 노년의 두 얼굴, Young-old(전기고령자, 65~74세) VS Old-old(후기고령자, 75세 이상)

담당 부서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박선희 (051-850-3390)
		담당자	주무관	윤지현 (051-850-3367)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동남권은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연령을 세분화한 특성 파악이 필요함

* 초고령사회 진입: 전국('24년), 부산('21년), 경남('23년), 울산('27년 예상)

- 이에 동남권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인구·가족, 경제상태, 건강, 사회참여 4개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고령층(WHO 고령친화도시 평가지표 참고): 전기고령자(65~74세), 후기고령자(75세 이상)

□ 분석대상 및 내용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Young-old(전기고령자, 65~74세)와 Old-old(후기고령자, 75세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
- 전국·동남권 자료를 비교하고, 동남권 내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별 특성 분석
- 분석 내용

영역	지표명	활용 자료원
I.인구·가족	- 인구 현황, 인구 추이, 고령가구, 이혼·재혼 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관계 만족도	
II.경제상태	-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 주관적 소득수준,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생활비 마련 방법	
III.건강	- 기대여명, 사망원인별 사망률	생명표, 사망원인통계
	-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관리 방법, 스트레스 정도	
IV.사회참여	-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사회조사

□ 이용 시 유의사항

- 일부 통계수치는 상대표준오차(RSE)에 따라 「*, **」표시를 하였으므로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 신뢰도 다소 낮음($0.25 \leq RSE < 0.5$), “**” 신뢰도 낮음($0.5 \leq RSE$)
- 통계표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에 사용된 「0.0」은 단위 미만, 「-」은 해당숫자 없음을 의미함
- 이 보도자료는 동남지방데이터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dn>)에 게시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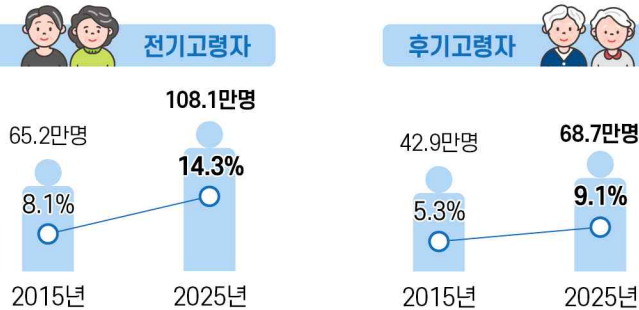
□ 요약	1
 I. 인구·가족	
1. 고령인구	6
2. 고령인구 추이	7
3. 고령자 가구	8
4. 이혼 및 재혼	9
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0
6. 가족관계 만족도	11
 II. 경제상태	
1. 고용률	12
2. 주관적 소득 수준	13
3. 노후 준비여부 및 주된 노후 준비방법	14
4. 생활비 마련 방법	15
 III. 건강	
1. 기대여명	16
2. 사망원인별 사망률	17
3. 주관적 건강평가	18
4. 건강관리 방법	19
5. 스트레스 정도	20
 IV. 사회참여	
1. 삶의 만족도	21
2. 사회적 관계망	22

Young-old^{65~74세} VS Old-old^{7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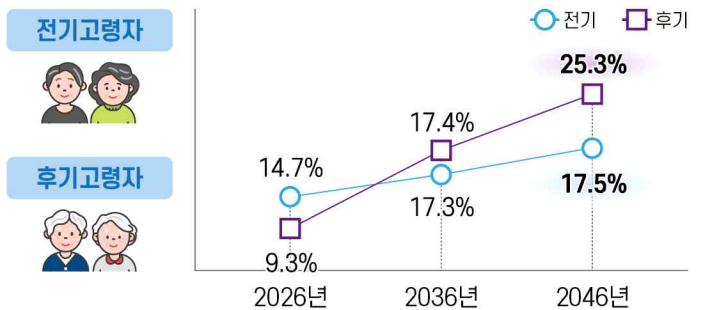


I. 인구·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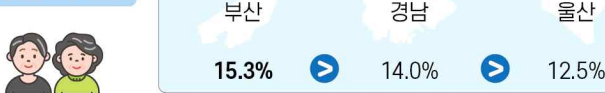
고령인구 규모 및 비중



고령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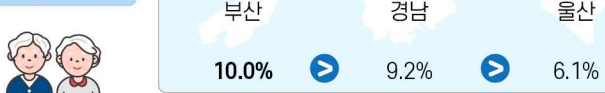
전기(2025년)



전기(2046년)



후기(2025년)



후기(20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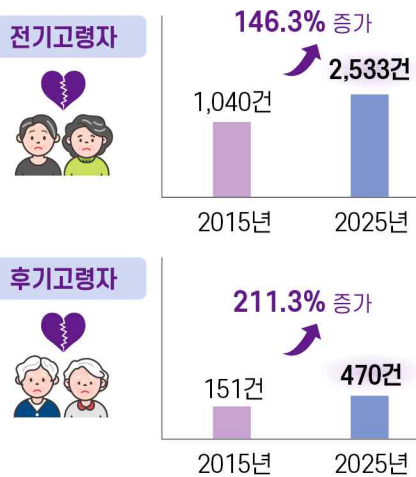
고령자가구(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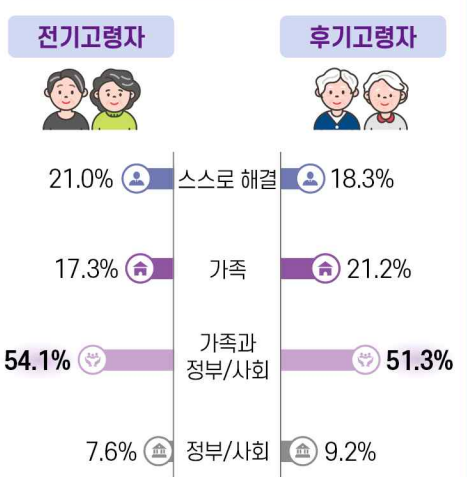
1인가구 비중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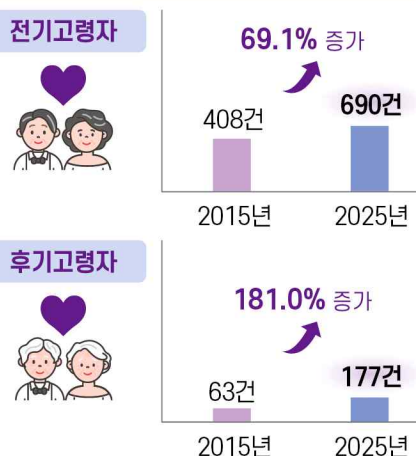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24년)



전기(2024년)



재혼



전기(가족과 정부/사회)



후기(2024년)



후기(가족과 정부/사회)



II. 경제상태

고용률

전기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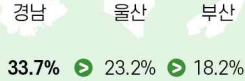
후기고령자



전기(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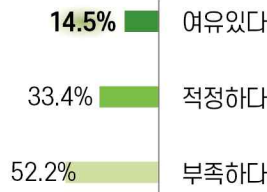


후기(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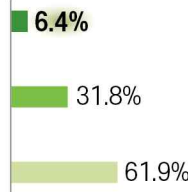


주관적 소득수준(2025년)

전기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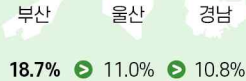


후기고령자



여유있다

전기(2025년)



후기(2025년)



노후준비(2025년)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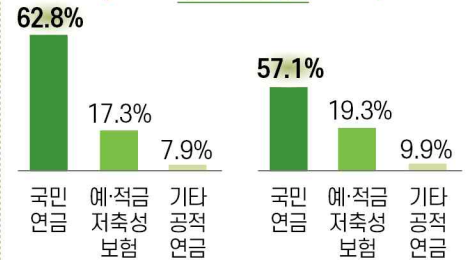


노후준비여부

■ 준비하고(되어) 있다 ■ 준비하고(되어) 있지않다



주원준비방법



III. 건강 및 사회참여

기대여명(2023년)



65세

약 21년



75세

약 13년

65세



75세



사망원인별 사망률(2024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주관적 건강평가(2024년)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전기(좋은편)



후기(좋은편)



삶의 만족도 '만족'(2025년)



전기고령자

37.3%



후기고령자

27.4%

전기(만족)



후기(만족)



데이터로 본 동남권 노년의 두 얼굴[요약]

I. 인구·가족

- (인구 현황) '25년 동남권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77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23.4%이며, 전기고령자(65~74세) 비중은 14.3%,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비중은 9.1%로 나타남
 - 전기고령자: '15년 대비 울산(106.1%), 경남(72.4%), 부산(52.3%) 순으로 증가
 - 후기고령자: '15년 대비 울산(81.1%), 부산(71.4%), 경남(45.8%) 순으로 증가
- (인구 추이) '46년 동남권 추계 고령인구는 271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42.8%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7.5%, 후기고령자 비중은 25.3%로 나타남
 - 전기고령자: '26년 대비 울산(4.3%p), 경남(4.2%p), 부산(0.8%p) 순으로 증가
 - 후기고령자: '26년 대비 울산(17.1%p), 경남(16.8%p), 부산(14.7%p) 순으로 증가
- (고령가구) '24년 동남권 고령가구는 101만 가구, 고령가구 비중은 30.3%이며, 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8.2%, 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2.1%로 나타남
 - '24년 동남권 고령 1인가구 비중은 전기고령자 6.5%, 후기고령자 5.6%로 전국보다 높음
- (이혼·재혼) '25년 동남권 고령자 이혼 전수는 3,003건, 재혼 전수는 867건이며, '15년 대비 이혼 152.1%, 재혼 84.1% 증가함
 - 이혼: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1,493건(143.6%), 후기고령자 319건(211.3%) 증가
 - 재혼: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282건(69.1%), 후기고령자 114건(181.0%) 증가
- (부모 부양)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전기고령자 54.1%, 후기고령자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전기고령자 4.3%p, 후기고령자 2.8%p임

II. 경제상태

- (고용률) '25년 동남권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46.6%, 후기고령자는 25.3%이며,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10.9%p, 후기고령자는 8.6%p 증가함
 - 전기고령자: '15년 대비 부산(11.7%p), 경남(11.5%p), 울산(2.7%p) 순으로 증가
 - 후기고령자: '15년 대비 경남(11.4%p), 부산(8.5%p), 울산(6.8%p) 순으로 증가
- (주관적 소득) '25년 동남권 고령자 가구 중 소득수준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14.5%)가 후기고령자(6.4%)보다 8.1%p 높게 나타남
 - 전기고령자: 「여유있다」 응답은 부산(18.7%), 울산(11.0%), 경남(10.8%) 순
 - 후기고령자: 「여유있다」 응답은 부산(7.2%), 울산(5.9%), 경남(5.5%) 순

- (노후 준비) '25년 동남권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비율은 전기고령자(75.0%)가 후기고령자(50.6%) 보다 높으며,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남
 - 전기고령자: 노후준비 비율은 경남(79.2%), 부산(72.9%), 울산(68.9%) 순
 - 후기고령자: 노후준비 비율은 경남(55.5%), 부산(47.7%), 울산(43.6%) 순
- (생활비 마련) '25년 동남권 고령자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전기고령자(85.5%)가 후기고령자(57.3%)보다 28.2%p 높게 나타남
 - 전기고령자: 본인과 배우자 부담은 경남(89.1%), 부산(85.6%), 울산(72.1%) 순
 - 후기고령자: 본인과 배우자 부담은 부산(59.0%), 경남(57.4%), 울산(47.1%) 순

Ⅲ. 건강

- (기대여명) '23년 동남권 65세의 기대여명은 약 21년, 75세의 기대여명은 약 13년으로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65세 기대여명: 부산·경남 20.8년, 울산 20.9년
 - 75세 기대여명: 부산·경남 12.7년, 울산 12.6년
- (사망원인)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이며, 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임
- (건강평가) '24년 동남권 고령자 중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39.5%, 후기고령자 20.4%로 전국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전기고령자: 부산(40.7%), 경남(39.8%), 울산(34.0%) 순임
 - 후기고령자: 부산(21.8%), 경남(20.1%), 울산(14.5%) 순임
- (건강관리)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방법 중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은 전기고령자가 높고, 「아침에 식사하기」는 후기고령자가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24년 동남권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38.2%, 후기고령자 35.4%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Ⅳ. 사회참여

- (삶의 만족도) '25년 동남권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전기고령자(37.3%)가 후기고령자(27.4%)보다 9.9%p 높게 나타남
 - 전기고령자: 경남(38.4%), 울산(37.5%), 부산(36.2%) 순
 - 후기고령자: 울산(30.1%), 부산(28.6%), 경남(25.6%) 순
- (사회적 관계망) '25년 동남권 고령자는 아플 때 가사 부탁, 급전을 빌릴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전국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데이터로 본 부산 노년의 두 얼굴(요약)

I. 인구·가족

- (고령인구) '25년 부산 고령인구는 82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25.3%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5.3%, 후기고령자 비중은 10.0%로 나타남
 - '46년 부산 추계 고령인구는 110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41.4%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6.4%, 후기고령자 비중은 25.0%임
- (고령가구) '24년 부산 고령가구는 47만 가구, 고령가구 비중은 32.1%이며, 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9.2%, 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2.9%로 나타남
 - '24년 부산 고령 1인가구 비중은 전기고령자 6.9%, 후기고령자 5.8%임
- (이혼·재혼) '25년 부산 고령자 이혼 건수는 1,455건, 재혼 건수는 399건이며, '15년 대비 이혼 121.5%, 재혼 70.5% 증가함
- (부모 부양) '24년 부산 고령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전기고령자 51.5%, 후기고령자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 '24년 부산 고령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전기고령자 6.8%p, 후기고령자 3.3%p임

II. 경제상태

- (고용률) '25년 부산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43.2%, 후기고령자 18.2%이며, '15년 대비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11.7%p, 후기고령자 8.5%p 증가함
- (주관적 소득수준) '25년 부산 고령자 가구 중 소득수준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18.7%)가 후기고령자(7.2%)보다 11.5%p 높게 나타남
- (노후 준비) '25년 부산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72.9%)가 후기고령자(47.7%) 보다 높으며,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남

III. 건강·사회참여

- (사망원인) '24년 부산 고령자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이며, 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임
- (건강평가) '24년 부산 고령자 중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40.7%, 후기고령자 21.8%로 나타남
- (스트레스) '24년 부산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37.5%) 보다 후기고령자(39.7%)가 2.2%p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 '25년 부산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전기고령자(36.2%)가 후기고령자(28.6%)보다 7.6%p 높게 나타남

데이터로 본 울산 노년의 두 얼굴(요약)

I. 인구·가족

- (고령인구) '25년 울산 고령인구는 20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18.6%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2.5%, 후기고령자 비중은 6.1%로 나타남
 - '46년 울산 추계 고령인구는 37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40.7%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7.3%, 후기고령자 비중은 23.4%임
- (고령가구) '24년 울산 고령가구는 11만 가구, 고령가구 비중은 24.7%이며, 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6.4%, 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8.1%로 나타남
 - '24년 울산 고령 1인가구 비중은 전기고령자 5.3%, 후기고령자 3.5%임
- (이혼·재혼) '25년 울산 고령자 이혼 건수는 300건, 재혼 건수는 106건이며, '15년 대비 이혼 185.7%, 재혼 96.3% 증가함
- (부모 부양) '24년 울산 고령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전기고령자의 경우 「가족과 정부/사회」 48.4%, 후기고령자는 「스스로 해결」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 '24년 울산 고령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전기고령자 9.3%p, 후기고령자 11.9%p임

II. 경제상태

- (고용률) '25년 울산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39.8%, 후기고령자 23.2%이며,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2.7%p, 후기고령자는 6.8%p 증가함
- (주관적 소득수준) '25년 울산 고령자 가구 중 소득수준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11.0%)가 후기고령자(5.9%)보다 5.1%p 높게 나타남
- (노후 준비) '25년 울산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68.9%)가 후기고령자(43.6%) 보다 높으며,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남

III. 건강·사회참여

- (사망원인) '24년 울산 고령자의 주된 사망원인은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 모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임
- (건강평가) '24년 울산 고령자 중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34.0%, 후기고령자 14.5%로
- (스트레스) '24년 울산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26.2%)가 후기고령자(23.9%) 보다 2.3%p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 '25년 울산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전기고령자(37.5%)가 후기고령자(30.1%)보다 7.4%p 높게 나타남

데이터로 본 경남 노년의 두 얼굴(요약)

I. 인구·가족

- ☐ (고령인구) '25년 경남 고령인구는 75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23.2%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4.0%, 후기고령자 비중은 9.2%로 나타남
 - '46년 경남 추계 고령인구는 124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44.7%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8.6%, 후기고령자 비중은 26.1%임
- ☐ (고령가구) '24년 경남 고령가구는 43만 가구, 고령가구 비중은 30.2%이며, 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7.7%, 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2.6%로 나타남
 - '24년 경남 고령 1인가구 비중은 전기고령자 6.5%, 후기고령자 6.1%임
- ☐ (이혼·재혼) '25년 경남 고령자 이혼 건수는 1,248건, 재혼 건수는 362건이며, '15년 대비 이혼 190.9%, 재혼 97.8% 증가함
- ☐ (부모 부양) '24년 경남 고령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전기고령자 58.9%, 후기고령자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가족관계 만족도) '24년 경남 고령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전기고령자 6.3%p, 후기고령자 4.8%p임

II. 경제상태

- ☐ (고용률) '25년 경남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52.5%, 후기고령자 33.7%이며,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11.5%p, 후기고령자는 11.4%p 증가함
- ☐ (주관적 소득수준) '25년 경남 고령자 가구 중 소득수준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10.8%)가 후기고령자(5.5%)보다 5.3%p 높게 나타남
- ☐ (노후 준비) '25년 경남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79.2%)가 후기고령자(55.5%) 보다 높으며,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남

III. 건강·사회참여

- ☐ (사망원인) '24년 경남 고령자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이며, 후기고령자는 암, 폐렴, 심장질환 순임
- ☐ (건강평가) '24년 경남 고령자 중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39.8%, 후기고령자 20.1%로 나타남
- ☐ (스트레스) '24년 경남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42.9%)가 후기고령자(33.5%)보다 9.4%p 높게 나타남
- ☐ (삶의 만족도) '25년 경남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전기고령자(38.4%)가 후기고령자(25.6%)보다 12.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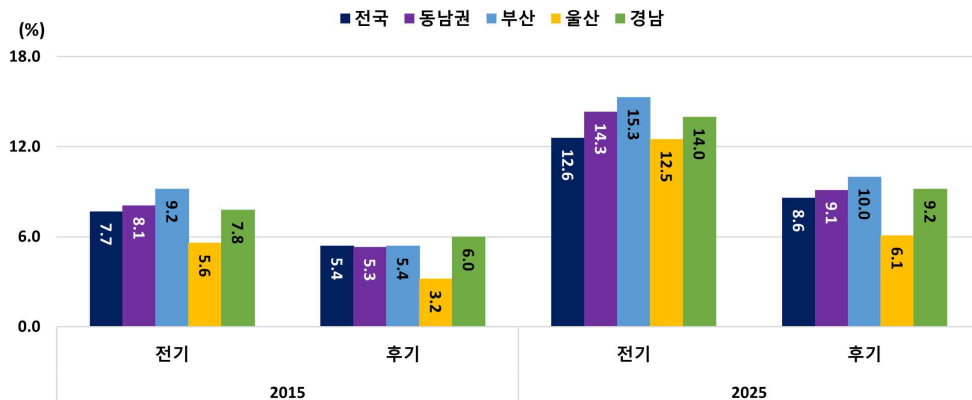
I. 인구 · 가족

1. 고령인구

'25년 동남권 고령인구는 177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23.4%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4.3%, 후기고령자 비중은 9.1%로 나타남

- (인구 규모) '25년 동남권 고령인구는 177만 명으로 '15년 대비 69만 명(63.3%) 증가하였으며, 전기고령자 43만 명(65.8%), 후기고령자 26만 명(60.1%) 증가함
 -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증가율은 울산(106.1%), 경남(72.4%), 부산(52.3%) 순이며, 후기고령자 증가율은 울산(81.1%), 부산(71.4%), 경남(45.8%) 순임
- (인구 비중) '25년 동남권 고령인구 비중은 23.4%로 '15년 대비 10.0%p 증가하였으며, 전기고령자 인구비중(14.3%)이 후기고령자(9.1%)보다 5.2%p 높음
 - '25년 동남권 고령자 비중은 부산이 전기고령자(15.3%), 후기고령자(10.0%) 모두 가장 높음

【그림 1-1】 연도별 고령인구 비중



【표 1-1】 인구 현황

(단위: 천 명, %)

		전체 인구	고령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전기고령자 (65~74세)	구성비	후기고령자 (75세 이상)	구성비
전국	2015	51,529	6,775	13.1	3,982	7.7	2,794	5.4
	2025	51,117	10,841	21.2	6,447	12.6	4,394	8.6
동남권	2015	8,053	1,082	13.4	652	8.1	429	5.3
	2025	7,541	1,767	23.4	1,081	14.3	687	9.1
부산	2015	3,514	515	14.7	325	9.2	189	5.4
	2025	3,242	819	25.3	495	15.3	324	10.0
울산	2015	1,174	103	8.8	66	5.6	37	3.2
	2025	1,092	203	18.6	136	12.5	67	6.1
경남	2015	3,365	464	13.8	261	7.8	203	6.0
	2025	3,207	745	23.2	450	14.0	296	9.2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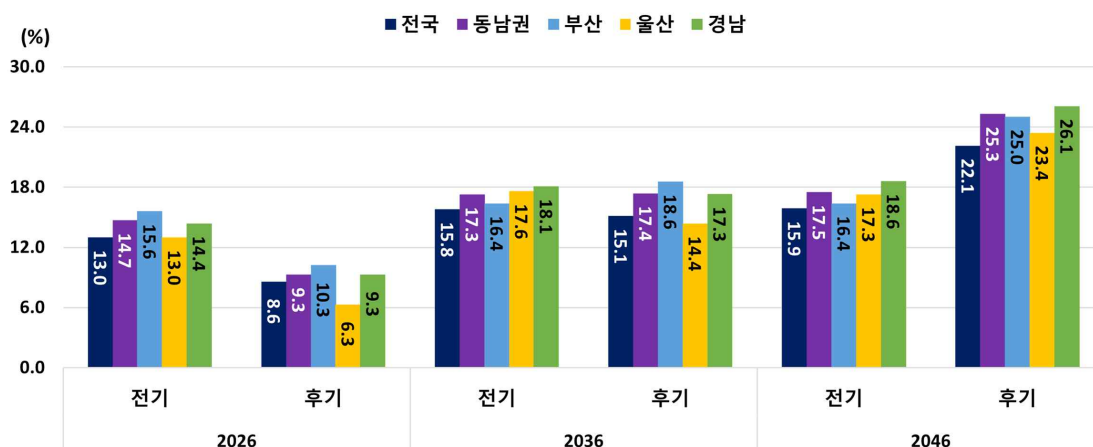
1) 구성비: (해당연령 인구/ 전체 인구) * 100

2. 고령인구 추이

'46년 동남권 추계 고령인구는 271만 명, 고령인구 비중은 42.8%이며, 전기고령자 비중은 17.5%, 후기고령자 비중은 25.3%로 나타남

- (전기) '46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비중은 17.5%로 '26년(14.7%) 대비 2.8%p 증가함
 - '26년 대비 전기고령자 비중 증가폭은 울산(4.3%p), 경남(4.2%p), 부산(0.8%p) 순으로 큼
- (후기) '46년 동남권 후기고령자 비중은 25.3%로 '26년(9.3%) 대비 16.0%p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명 중 2.5명이 후기고령자에 속할 것으로 전망됨
 - '26년 대비 후기고령자 비중 증가폭은 울산(17.1%p), 경남(16.8%p), 부산(14.7%p) 순으로 큼

【그림 1-2】 연도별 고령인구 비중



【표 1-2】 고령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26			2036			2046		
	고령인구	65~74세 구성비	75세 이상 구성비	고령인구	65~74세 구성비	75세 이상 구성비	고령인구	65~74세 구성비	75세 이상 구성비
전국	11,125	13.0	8.6	15,674	15.8	15.1	18,469	15.9	22.1
동남권	1,800	14.7	9.3	2,428	17.3	17.4	2,710	17.5	25.3
부산	830	15.6	10.3	1,037	16.4	18.6	1,101	16.4	25.0
울산	210	13.0	6.3	320	17.6	14.4	366	17.3	23.4
경남	760	14.4	9.3	1,071	18.1	17.3	1,243	18.6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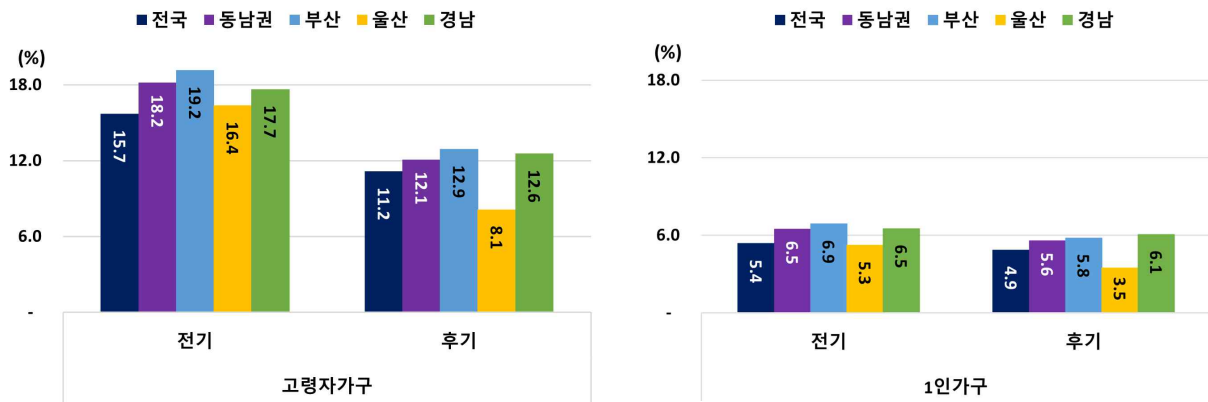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6~2052년」

3. 고령자 가구

'24년 동남권 고령가구는 101만 가구, 고령가구 비중은 30.3%이며, 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8.2%, 후기고령자 가구 비중은 12.1%로 나타남

- (가구 규모) '24년 동남권 고령가구는 101만 가구로 '15년 대비 39만 가구(61.7%) 증가하였으며, 전기고령자 22만 가구(57.1%), 후기고령자 17만 가구(69.2%) 증가함
 - '15년 대비 동남권 1인가구 중 전기고령자 11만 가구(92.1%), 후기고령자는 8만 가구(77.4%) 증가함
- (가구 비중) '24년 동남권 고령가구 비중은 30.3%로 '15년 대비 9.5%p 증가하였으며, 전기고령자 가구비중(18.2%)이 후기고령자(12.1%) 보다 6.1%p 높음
 - '24년 동남권 1인가구 비중은 전기고령자(6.5%), 후기고령자(5.6%) 모두 전국보다 높음

【그림 1-3】 고령자 가구 비중(2024)



【표 1-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가구									
			65세 이상						1인가구			
			65세 이상	비중	65~74세	비중	75세이상	비중	65~74세	비중	75세이상	비중
전국	2015	19,111	3,720	19.5	2,259	11.8	1,461	7.6	622	3.3	601	3.1
	2024	22,294	5,993	26.9	3,504	15.7	2,489	11.2	1,201	5.4	1,087	4.9
동남권	2015	3,017	627	20.8	387	12.8	240	8.0	114	3.8	106	3.5
	2024	3,349	1,014	30.3	608	18.2	406	12.1	219	6.5	188	5.6
부산	2015	1,336	298	22.3	194	14.5	104	7.8	55	4.1	43	3.2
	2024	1,471	472	32.1	282	19.2	190	12.9	102	6.9	86	5.8
울산	2015	423	57	13.5	39	9.2	18	4.3	10	2.5	7	1.8
	2024	462	114	24.7	76	16.4	38	8.1	24	5.3	16	3.5
경남	2015	1,258	272	21.6	154	12.3	118	9.3	49	3.9	56	4.4
	2024	1,416	428	30.2	250	17.7	178	12.6	93	6.5	86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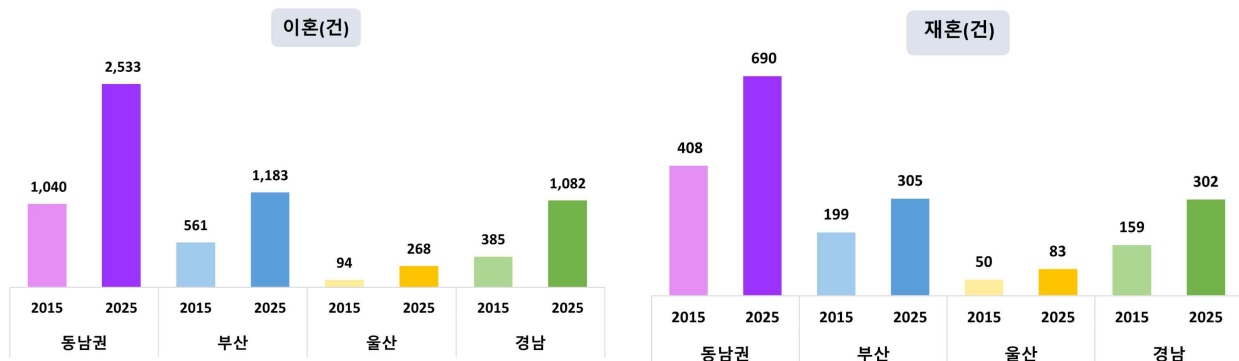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4. 이혼 및 재혼

'25년 동남권 고령자 이혼 건수는 3,003건, 재혼 건수는 867건이며,
'15년 대비 이혼 152.1%, 재혼 84.1% 증가함

- (이혼) '25년 동남권 고령자 이혼 건수는 3,003건으로 '15년(1,191건) 대비 152.1% 증가하였으며, 전기고령자 1,493건(143.6%), 후기고령자 319건(211.3%) 증가함
 - '15년 대비 이혼 건수 증가율은 전기고령자는 울산(185.1%), 후기고령자는 경남(277.3%)이 가장 높음
- (재혼) '25년 동남권 고령자 재혼 건수는 867건으로 '15년(471건) 대비 84.1% 증가하였으며, 전기고령자 282건(69.1%), 후기고령자 114건(181.0%) 증가함
 - '15년 대비 재혼 건수 증가율은 전기고령자는 경남(89.9%), 후기고령자는 울산(475.0%)이 가장 높음

【그림 I -4】 연도별 고령자 이혼·재혼 건수



【표 I -4】 고령자 이혼·재혼 건수

(단위: 건수)

		이혼			재혼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전국	2015	8,507	7,296	1,211	3,741	3,106	635
	2025	19,123	16,046	3,077	6,667	5,035	1,632
동남권	2015	1,191	1,040	151	471	408	63
	2025	3,003	2,533	470	867	690	177
부산	2015	657	561	96	234	199	35
	2025	1,455	1,183	272	399	305	94
울산	2015	105	94	11	54	50	4
	2025	300	268	32	106	83	23
경남	2015	429	385	44	183	159	24
	2025	1,248	1,082	166	362	302	60

-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전기고령자 54.1%, 후기고령자 51.3%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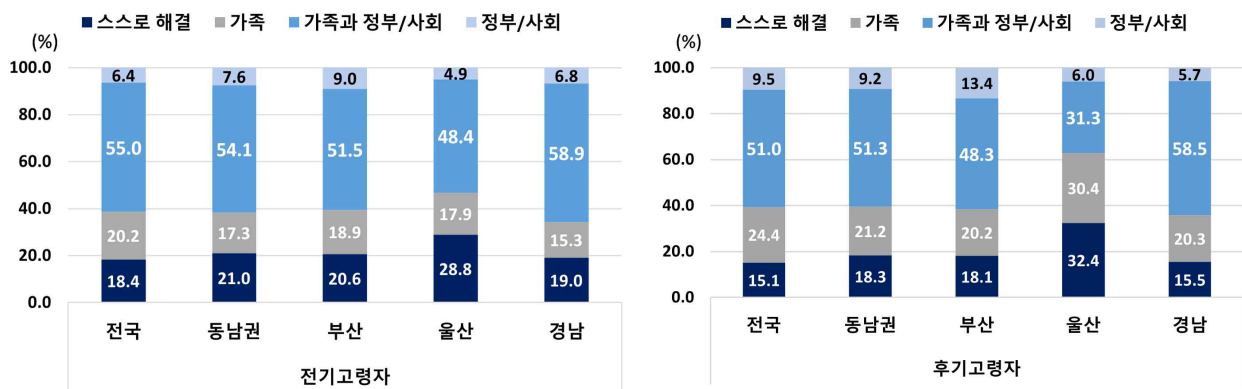
□ (전기) '24년 동남권 전기고령자의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 54.1%, 「스스로해결」 21.0%, 「가족」 17.3%, 「정부/사회」 7.6% 순임

○ '14년 대비 '24년 동남권 전기고령자는 「가족」 13.5%p 감소, 「가족과 정부/사회」 19.9%p 증가함

□ (후기)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 51.3%, 「가족」 21.2%, 「스스로해결」 18.3%, 「정부/사회」 9.2% 순임

○ '14년 대비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는 「가족」 12.0%p 감소, 「가족과 정부/사회」 11.9%p 증가함

【그림 I -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24)



【표 I -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전국	2014	65~74세	27.4	31.7	35.7	5.3
		75세 이상	18.3	37.9	35.7	8.1
	2024	65~74세	18.4	20.2	55.0	6.4
		75세 이상	15.1	24.4	51.0	9.5
동남권	2014	65~74세	28.9	30.8	34.2	6.1
		75세 이상	20.5	33.2	39.4	6.9
	2024	65~74세	21.0	17.3	54.1	7.6
		75세 이상	18.3	21.2	51.3	9.2
부산	2014	65~74세	35.4	28.9	29.3	6.4
		75세 이상	23.0	32.2	36.2	8.7*
	2024	65~74세	20.6	18.9	51.5	9.0*
		75세 이상	18.1	20.2	48.3	13.4*
울산	2014	65~74세	35.6	25.6	36.7	2.1*
		75세 이상	26.6	42.5	29.2	1.8**
	2024	65~74세	28.8	17.9	48.4	4.9
		75세 이상	32.4	30.4	31.3	6.0
경남	2014	65~74세	18.2	34.6	40.4	6.7
		75세 이상	17.7	32.4	43.5	6.4*
	2024	65~74세	19.0	15.3	58.9	6.8
		75세 이상	15.5	20.3	58.5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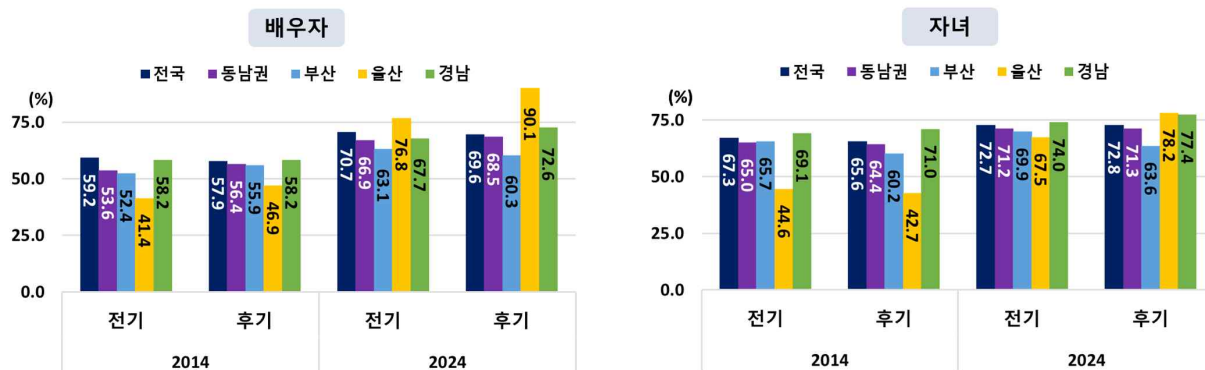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6. 가족관계 만족도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가 배우자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전기고령자 4.3%p, 후기고령자 2.8%p로 나타남

- (배우자) '24년 동남권 배우자 「만족」은 전기고령자(66.9%)가 후기고령자(68.5%)보다 1.6%p 낮으며, 울산이 전기고령자(76.8%), 후기고령자(90.1%) 모두 가장 높음
 - '14년 대비 '24년 동남권 배우자 만족도는 전기고령자 13.3%p, 후기고령자 12.1%p 증가함
- (자녀) '24년 동남권 자녀 「만족」은 전기고령자(71.2%)와 후기고령자(71.3%)가 비슷하며, 전기고령자는 경남(74.0%), 후기고령자는 울산(78.2%)이 가장 높음
 - '14년 대비 '24년 동남권 자녀 만족도는 전기고령자 6.2%p, 후기고령자 6.9%p 증가함

【그림 1-6】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표 1-6】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2014	65~74세	59.2	33.6	7.2	67.3	27.9	4.9
		75세 이상	57.9	33.2	8.9	65.6	27.8	6.6
	2024	65~74세	70.7	24.7	4.7	72.7	23.3	4.1
		75세 이상	69.6	25.0	5.4	72.8	23.0	4.2
동남권	2014	65~74세	53.6	39.5	6.8*	65.0	27.9	7.1
		75세 이상	56.4	36.2	7.4*	64.4	31.6	4.0*
	2024	65~74세	66.9	28.5	4.6	71.2	23.4	5.4
		75세 이상	68.5	26.6	4.9	71.3	23.7	5.0
부산	2014	65~74세	52.4	40.8	6.8*	65.7	27.8	6.5*
		75세 이상	55.9	37.6	6.5*	60.2	35.6	4.2*
	2024	65~74세	63.1	32.7	4.2*	69.9	24.3	5.8*
		75세 이상	60.3	32.2	7.4*	63.6	30.8	5.6*
울산	2014	65~74세	41.4	48.9	9.7*	44.6	44.1	11.3*
		75세 이상	46.9	36.7	16.3*	42.7	47.3	10.0*
	2024	65~74세	76.8	21.9	1.3*	75.5	27.6	5.0*
		75세 이상	90.1	7.9	1.9*	78.2	16.5	5.3*
경남	2014	65~74세	58.2	35.6	6.2*	69.1	24.1	6.8*
		75세 이상	58.2	35.3	6.5*	71.0	26.1	2.9*
	2024	65~74세	67.7	26.3	6.0*	74.0	21.1	5.0*
		75세 이상	72.6	24.5	3.0*	77.4	18.3	4.3*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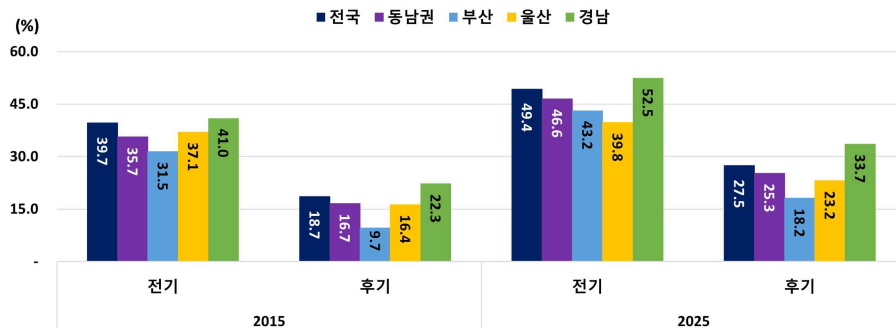
Ⅱ. 경제상태

1. 고용률

'25년 동남권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46.6%, 후기고령자는 25.3%이며,
'15년 대비 고용률은 전기고령자 10.9%p, 후기고령자는 8.6%p 증가함

- (전기) '25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46.6%로 전국(49.4%)보다 2.8%p 낮으나, '15년(35.7%) 대비 10.9%p 증가함
 - '15년 대비 전기고령자 고용률 증가폭은 부산(11.7%p), 경남(11.5%p), 울산(2.7%p) 순으로 큼
- (후기) '25년 동남권 후기고령자 고용률은 25.3%로 전국(27.5%)보다 2.2%p 낮으나, '15년(16.7%) 대비 8.6%p 증가함
 - '15년 대비 후기고령자 고용률 증가폭은 경남(11.4%p), 부산(8.5%p), 울산(6.8%p) 순으로 큼

【그림 Ⅱ-1】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표 Ⅱ-1】 고령자 고용률

(단위: 천 명, %)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전국	2015	65~74세	3,890	1,582	1,545	37	39.7
		75세 이상	2,595	489	485	4	18.7
	2025	65~74세	6,128	3,079	3,025	54	49.4
		75세 이상	4,262	1,179	1,173	6	27.5
동남권	2015	65~74세	639	232	228	4	35.7
		75세 이상	395	66	66	0	16.7
	2025	65~74세	1,019	483	475	8	46.6
		75세 이상	665	169	168	0	25.3
부산	2015	65~74세	327	106	103	3	31.5
		75세 이상	162	16	16	0	9.7
	2025	65~74세	470	209	203	6	43.2
		75세 이상	316	58	58	0	18.2
울산	2015	65~74세	67	25	25	0	37.1
		75세 이상	32	5	5	0	16.4
	2025	65~74세	128	52	51	1	39.8
		75세 이상	65	15	15	0	23.2
경남	2015	65~74세	245	101	100	1	41.0
		75세 이상	201	45	45	0	22.3
	2025	65~74세	420	221	221	1	52.5
		75세 이상	284	96	96	0	33.7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상반기

2. 주관적 소득 수준

'25년 동남권 고령자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14.5%)가 후기고령자(6.4%)보다 8.1%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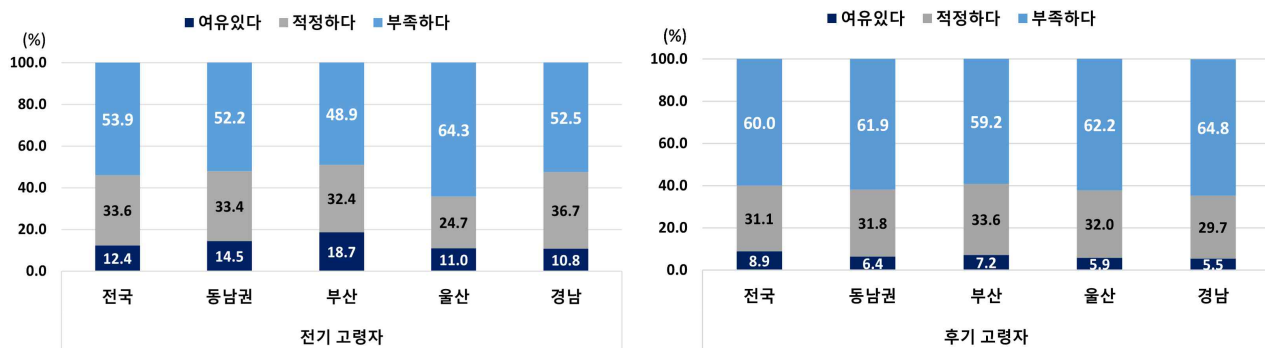
□ (전기) '25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소득 수준이 「여유있다」 응답은 14.5%로 전국(12.4%)보다 2.1%p 높고, '15년(4.1%) 대비 10.4%p 증가함

○ '25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여유있다」 응답은 부산(18.7%), 울산(11.0%), 경남(10.8%) 순임

□ (후기) '25년 동남권 후기고령자 소득 수준이 「여유있다」 응답은 6.4%로 전국(8.9%)보다 2.5%p 낮으나, '15년(1.6%) 대비 4.8%p 증가함

○ '25년 동남권 후기고령자 「여유있다」 응답은 부산(7.2%), 울산(5.9%), 경남(5.5%) 순임

【그림 II-2】 주관적 소득수준(2025)



【표 II-2】 주관적 소득 수준

(단위: %)

			여유있다			적정하다	부족하다		
			매우 여유있다	약간 여유있다			약간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국	2015	65~74세	5.5	0.7	4.8	29.5	65.0	42.3	22.7
		75세 이상	4.1	0.5	3.5	28.7	67.2	41.2	26.0
	2025	65~74세	12.4	1.4	11.0	33.6	53.9	39.5	14.4
		75세 이상	8.9	0.9*	8.0	31.1	60.0	43.6	16.4
동남권	2015	65~74세	4.1	0.9**	3.2*	31.7	64.1	46.5	17.6
		75세 이상	1.6	0.4**	1.2*	33.8	64.7	42.9	21.8
	2025	65~74세	14.5	1.7*	12.8	33.4	52.2	40.5	11.6
		75세 이상	6.4	0.6**	5.7	31.8	61.9	46.9	15.0
	부산	65~74세	5.0	1.7**	3.3*	28.4	66.6	47.0	19.7
		75세 이상	1.5	0.8**	0.7**	29.1	69.4	47.4	22.0
	2025	65~74세	18.7	1.7**	16.9	32.4	48.9	35.4	13.5
		75세 이상	7.2	0.6**	6.6*	33.6	59.2	39.7	19.4
울산	2015	65~74세	9.1	0.9**	8.3*	25.5	65.4	42.6	22.8
		75세 이상	3.1	0.0	3.1**	23.3	73.6	47.5	26.1
	2025	65~74세	11.0	0.8**	10.3*	24.7	64.3	45.3	19.0
		75세 이상	5.9	1.4**	4.5**	32.0	62.2	39.4	22.8
경남	2015	65~74세	1.6	0.0	1.6**	37.7	60.7	47.2	13.5
		75세 이상	1.3	0.0	1.3**	41.1	57.7	37.0	20.7
	2025	65~74세	10.8	1.9*	8.9	36.7	52.5	44.9	7.6
		75세 이상	5.5	0.6**	5.0*	29.7	64.8	56.2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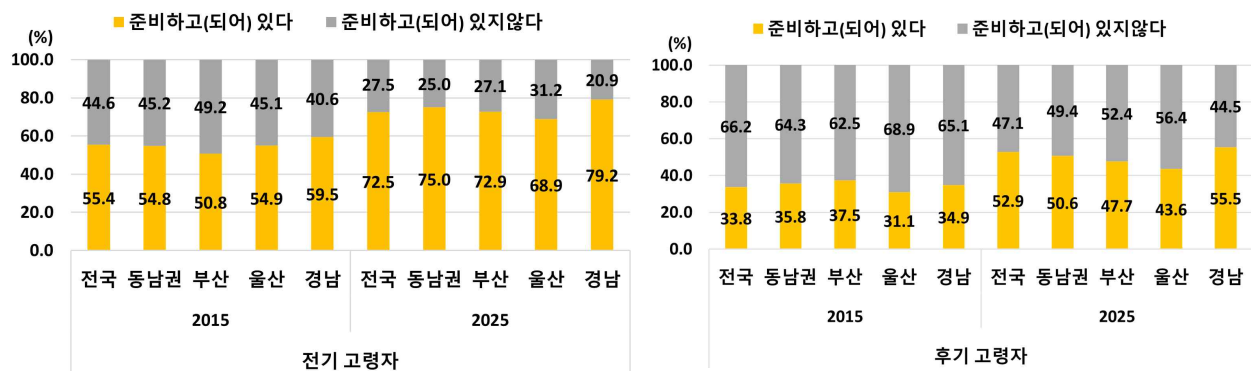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3. 노후 준비여부 및 주된 노후 준비방법

'25년 동남권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다」 비율은
전기고령자(75.0%)가 후기고령자(50.6%)보다 24.4%p 높게 나타남

- (준비여부) '25년 동남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전기고령자(75.0%)가 후기고령자(50.6%)보다 높으며, 전기고령자는 경남(79.2%), 부산(72.9%), 울산(68.9%) 순임
- '15년 대비 '25년 동남권 노후준비 비율은 전기고령자 20.2%p, 후기고령자 14.8%p 증가함
- (준비방법) '25년 동남권 고령자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전기고령자 62.8%, 후기고령자 57.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순임
- '15년 대비 '25년 동남권 「국민연금」 비율은 전기고령자 24.9%p, 후기고령자 25.4%p 증가함

【그림 II-3】 연도별 노후준비 여부



【표 II-3】 노후 준비여부 및 주된 노후 준비방법

(단위: %)

			준비하고(되어) 있다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주택연금, 주식 채권 등)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전 국	2015	65~74세	55.4	32.3	12.0	7.6	5.4	28.1	13.7	0.9	44.6
		75세 이상	33.8	19.5	17.5	7.4	4.0	31.1	18.5	2.1	66.2
	2025	65~74세	72.5	56.8	9.5	4.2	2.8	18.3	6.2	2.3	27.5
		75세 이상	52.9	46.1	11.5	3.5	2.6	23.7	9.3	3.4	47.1
동남권	2015	65~74세	54.8	37.9	8.0	8.8	7.5	24.7	12.3	0.7**	45.2
		75세 이상	35.8	31.7	9.2*	10.6	10.4*	20.3	16.1	1.7**	64.3
	2025	65~74세	75.0	62.8	7.9	4.1*	1.8*	17.3	4.5	1.7**	25.0
		75세 이상	50.6	57.1	9.9	3.4**	2.0*	19.3	6.9	1.5**	49.4
부산	2015	65~74세	50.8	39.7	6.9*	7.0*	10.4	25.7	10.3	0.0	49.2
		75세 이상	37.5	32.9	10.1*	4.1**	12.7*	18.1*	18.5	3.6**	62.5
	2025	65~74세	72.9	58.1	9.6	5.2**	2.1**	17.6	5.8*	1.7**	27.1
		75세 이상	47.7	53.1	12.8*	3.0**	0.0	20.1	9.3*	1.8**	52.4
울산	2015	65~74세	54.9	34.1	5.5*	10.4*	6.3*	25.4	16.8	1.5**	45.1
		75세 이상	31.1	19.6*	12.9*	6.4**	12.9*	16.7*	31.5*	0.0	68.9
	2025	65~74세	68.9	60.5	3.1*	7.7**	0.0	18.0	5.6*	5.3**	31.2
		75세 이상	43.6	54.0	10.1*	6.2**	8.5**	12.4*	6.5**	2.4**	56.4
경남	2015	65~74세	59.5	37.0	9.6*	10.3	4.9*	23.6	13.4*	1.3**	40.6
		75세 이상	34.9	32.4	7.8*	18.1*	7.5*	23.2*	11.1*	0.0	65.1
	2025	65~74세	79.2	68.3	7.2	2.0**	2.0*	16.9	2.8*	0.8**	20.9
		75세 이상	55.5	61.6	6.9*	3.3*	3.0*	19.6	4.6*	1.1**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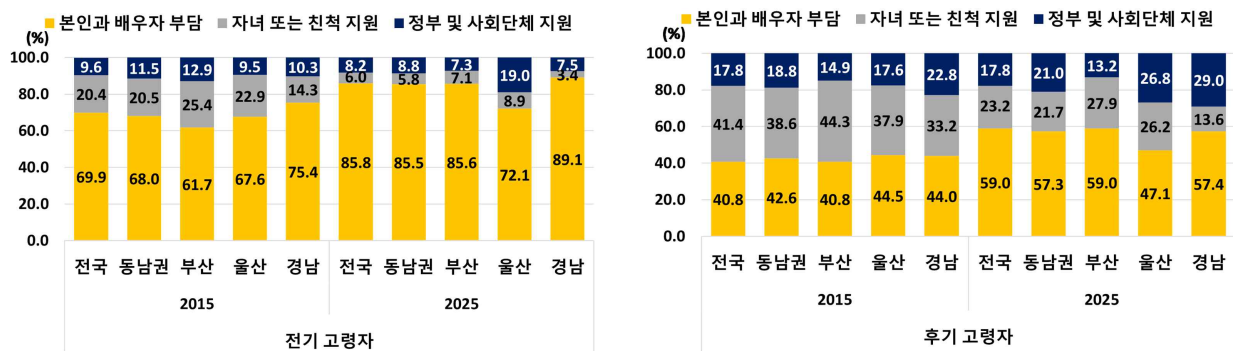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기

4. 생활비 마련 방법

'25년 동남권 고령자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며, 전기고령자(85.5%)가 후기고령자(57.3%)보다 28.2%p 높게 나타남

- (전기) '25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85.5%로 전국(85.8%)보다 0.3%p 낮으나, '15년(68.0%) 대비 17.5%p 증가함
 - '25년 동남권 「본인과 배우자」 부담은 경남(89.1%), 부산(85.6%), 울산(72.1%) 순임
- (후기) '25년 동남권 후기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57.3%, 「자녀 또는 친척지원」 21.7%,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21.0% 순이며, 「본인과 배우자」는 전국(59.0%)보다 1.7%p 낮으나, '15년(42.6%) 대비 14.7%p 증가함
 - '25년 동남권 「본인과 배우자」 부담은 부산(59.0%), 경남(57.4%), 울산(47.1%) 순임

【그림 II-4】 연도별 생활비 마련 방법



【표 II-4】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본인과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전 국	2015	65~74세	69.9	20.4	9.6
		75세 이상	40.8	41.4	17.8
	2025	65~74세	85.8	6.0	8.2
		75세 이상	59.0	23.2	17.8
동 남 권	2015	65~74세	68.0	20.5	11.5
		75세 이상	42.6	38.6	18.8
	2025	65~74세	85.5	5.8	8.8
		75세 이상	57.3	21.7	21.0
	부 산	65~74세	61.7	25.4	12.9
		75세 이상	40.8	44.3	14.9
		65~74세	85.6	7.1	7.3
		75세 이상	59.0	27.9	13.2
	울 산	65~74세	67.6	22.9	9.5
		75세 이상	44.5	37.9	17.6
		65~74세	72.1	8.9	19.0
		75세 이상	47.1	26.2	26.8
	경 남	65~74세	75.4	14.3	10.3
		75세 이상	44.0	33.2	22.8
		65~74세	89.1	3.4*	7.5
		75세 이상	57.4	13.6	29.0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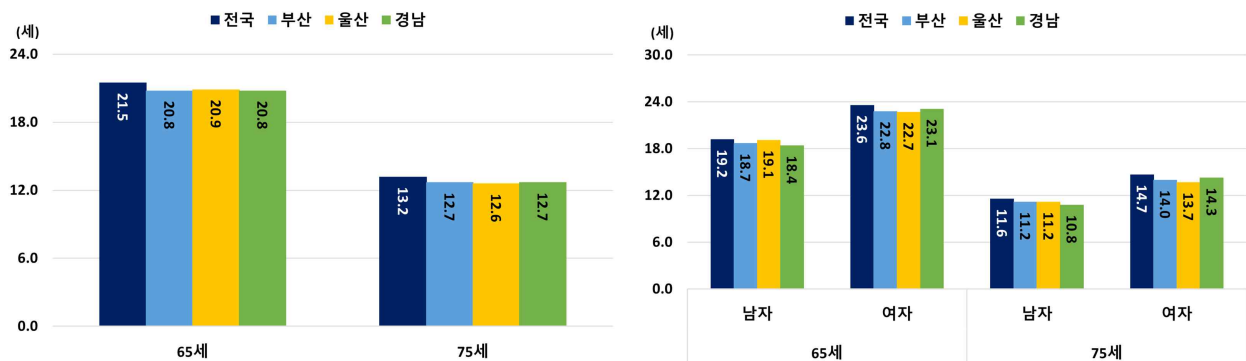
Ⅲ. 건강

1. 기대여명

'23년 동남권 65세의 기대여명은 약 21년,
75세의 기대여명은 약 13년으로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65세) '23년 65세의 기대여명은 부산·경남(20.8년), 울산(20.9년)이 전국(21.5년)보다 각각 0.7년, 0.6년 낮음
 - '17년 대비 '23년 65세 기대여명은 울산 1.0년, 부산·경남 0.7년 증가하였으며, 남녀 기대여명 차이는 경남(4.7년), 부산(4.1년), 울산(3.6년) 순임
- (75세) '23년 75세의 기대여명은 부산·경남(12.7년), 울산(12.6년)이 전국(13.2년)보다 각각 0.5년, 0.6년 낮음
 - '17년 대비 '23년 75세 기대여명은 울산 0.9년, 부산 0.6년, 경남 0.5년 증가하였으며, 남녀 기대여명 차이는 경남(3.5년), 부산(2.8년), 울산(2.5년) 순임

【그림 Ⅲ-1】 고령자의 기대여명(2023)



【표 Ⅲ-1】 기대여명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국	2017	20.8	18.6	22.7	4.1	12.7	11.1	14.0	2.9
	2020	21.5	19.2	23.6	4.4	13.3	11.6	14.7	3.1
	2023	21.5	19.2	23.6	4.4	13.2	11.6	14.7	3.1
부산	2017	20.1	18.1	22.0	3.9	12.1	10.6	13.3	2.7
	2020	20.9	18.6	23.1	4.5	12.8	11.1	14.2	3.1
	2023	20.8	18.7	22.8	4.1	12.7	11.2	14.0	2.8
울산	2017	19.9	17.8	21.8	4.0	11.7	10.0	13.1	3.1
	2020	20.5	18.7	22.2	3.5	12.3	10.9	13.5	2.6
	2023	20.9	19.1	22.7	3.6	12.6	11.2	13.7	2.5
경남	2017	20.1	17.7	22.3	4.6	12.2	10.4	13.7	3.3
	2020	21.0	18.5	23.2	4.7	12.8	11.0	14.4	3.4
	2023	20.8	18.4	23.1	4.7	12.7	10.8	14.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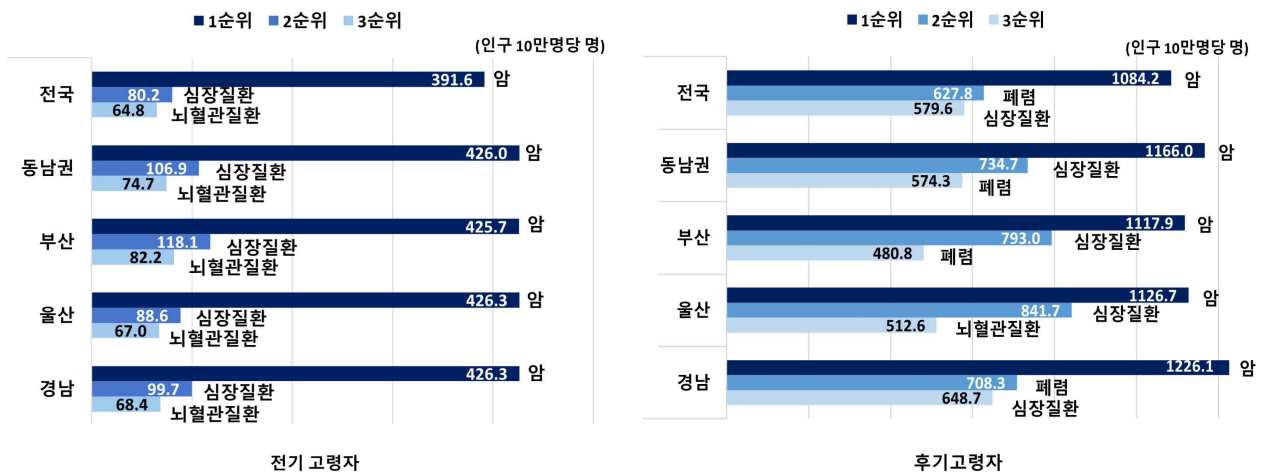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연령별 총 생존연수/연령별 생존자수)

2. 사망원인별 사망률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주된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이며, 후기고령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임

- (전기) '24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암(426.0명), 심장질환(106.9명), 뇌혈관질환(74.7명), 당뇨병(41.8명) 순으로 나타남
 - '24년 부산·울산·경남 전기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동일함
- (후기)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암(1,166.0명), 심장질환(734.7명), 폐렴(574.3명), 뇌혈관질환(471.7명) 순으로 나타남
 -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사망원인은 부산과 울산은 암, 심장질환 순이며, 경남은 암, 폐렴 순임

【그림 Ⅲ-2】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2024)



【표 Ⅲ-2】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당뇨	알츠하이머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전국	2024	65~74세	391.6	80.2	47.3	64.8	33.1	10.3	15.4	31.5
		75세 이상	1,084.2	579.6	627.8	418.4	176.7	277.2	124.2	46.9
동남권	2024	65~74세	426.0	106.9	41.3	74.7	41.8	15.5	18.1	31.7
		75세 이상	1,166.0	734.7	574.3	471.7	225.0	449.4	150.6	44.7
부산	2024	65~74세	425.7	118.1	39.1	82.2	40.9	12.6	15.4	32.0
		75세 이상	1,117.9	793.0	480.8	463.8	238.7	368.1	110.1	45.9
울산	2024	65~74세	426.3	88.6	24.8	67.0	39.7	13.2	16.6	29.8
		75세 이상	1,126.7	841.7	419.2	512.6	280.0	401.2	212.9	42.6
경남	2024	65~74세	426.3	99.7	48.6	68.4	43.4	19.5	21.5	32.1
		75세 이상	1,226.1	648.7	708.3	471.1	198.3	547.1	180.5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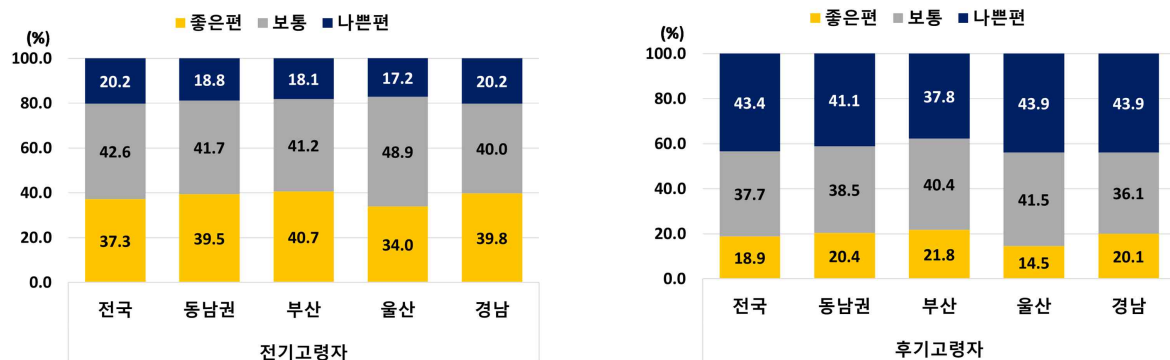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3. 주관적 건강평가

'24년 동남권 고령자 중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39.5%, 후기고령자 20.4%로 전국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전기) '24년 동남권 전기고령자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전국(37.3%)보다 2.2%p 높으며, '14년(23.4%) 대비 16.1%p 증가함
 - '14년 대비 '24년 동남권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 응답한 비율 증가폭은 부산(17.7%p), 경남(15.3%p), 울산(13.3%p) 순으로 증가함
- (후기)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4%로 전국(18.9%)보다 1.5%p 높으며, '14년(14.7%) 대비 5.7%p 증가함
 - '14년 대비 '24년 동남권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 응답한 비율 증가폭은 부산(7.0%p), 경남(5.3%p), 울산(0.3%p) 순으로 증가함

【그림 Ⅲ-3】 주관적 건강평가(2024)



【표 Ⅲ-3】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좋은편		보통이다		나쁜편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전국	2014	65~74세	24.7	3.2	21.5	35.4	39.8	33.2	6.6	
		75세 이상	15.0	2.0	13.0	25.1	59.8	46.3	13.6	
	2024	65~74세	37.3	3.7	33.5	42.6	20.2	18.2	2.0	
		75세 이상	18.9	2.0	17.0	37.7	43.4	37.4	5.9	
동남권	2014	65~74세	23.4	4.2	19.2	35.6	41.0	35.4	5.6	
		75세 이상	14.7	1.9*	12.8	27.9	57.3	46.4	10.9	
	2024	65~74세	39.5	2.4	37.0	41.7	18.8	16.9	2.0	
		75세 이상	20.4	1.3*	19.1	38.5	41.1	35.2	6.0	
부산	2014	65~74세	23.0	4.3*	18.7	35.3	41.7	37.1	4.6*	
		75세 이상	14.8	2.0**	12.8	26.9	58.4	49.0	9.4*	
	2024	65~74세	40.7	2.9*	37.8	41.2	18.1	16.0	2.1*	
		75세 이상	21.8	1.9**	20.0	40.4	37.8	32.1	5.7*	
울산	2014	65~74세	21.0	1.1**	19.9	38.8	40.2	31.9	8.3	
		75세 이상	14.2	1.8**	12.4*	29.2	56.6	46.8	9.7*	
	2024	65~74세	34.0	3.0*	31.0	48.9	17.2	15.2	1.9*	
		75세 이상	14.5	0.0	14.5	41.5	43.9	35.2	8.7*	
경남	2014	65~74세	24.5	4.8*	19.8	35.2	40.3	34.0	6.3	
		75세 이상	14.8	1.8**	13.0	28.5	56.7	44.5	12.1	
	2024	65~74세	39.8	1.8*	38.1	40.0	20.2	18.3	1.9*	
		75세 이상	20.1	1.0**	19.1	36.1	43.9	38.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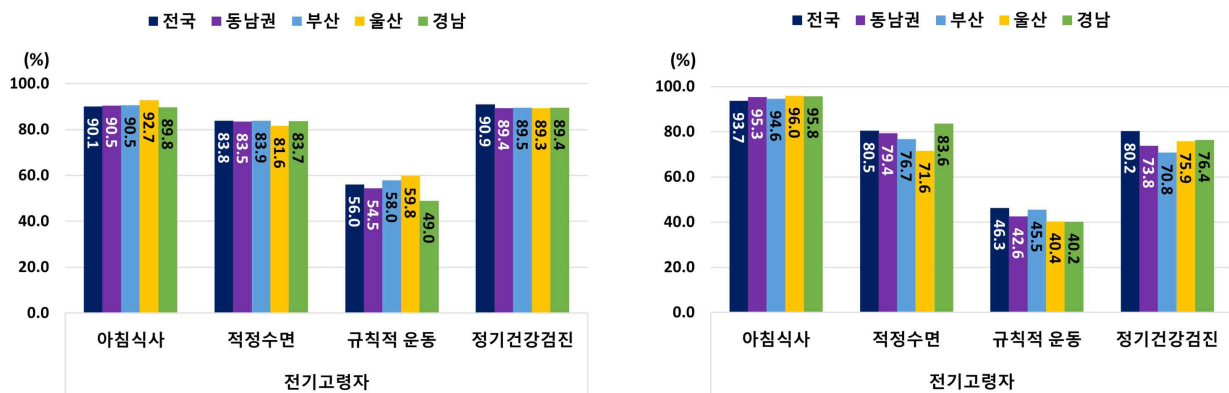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4. 건강관리 방법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방법 중 걱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은 전기고령자가 높고, 아침에 식사하기는 후기고령자가 높게 나타남

- (전기) '24년 동남권 전기고령자의 건강관리 방법은 「아침에 식사하기」 90.5%, 「정기건강검진」 89.4%, 「걱정수면」 83.5%, 「규칙적 운동」 54.5% 순으로 높음
 - '14년 대비 '24년 증가폭은 「정기건강검진」 11.5%p, 「규칙적 운동」 6.8%p 순으로 큼
- (후기)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건강관리 방법은 「아침에 식사하기」 95.3%, 「걱정수면」 79.4%, 「정기건강검진」 73.8%, 「규칙적 운동」 42.6% 순으로 높음
 - '14년 대비 '24년 증가폭은 「정기건강검진」 12.1%p, 「규칙적 운동」 8.1%p 순으로 큼

【그림 Ⅲ-4】 건강관리 방법(2024)



【표 Ⅲ-4】 건강관리 방법

(단위: %)

			아침에 식사하기		걱정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건강검진	
			실천함	실천안함	실천함	실천안함	실천함	실천안함	실천함	실천안함
전국	2014	65~74세	92.2	7.8	81.5	18.5	48.1	51.9	81.8	18.3
		75세 이상	94.2	5.8	80.3	19.7	34.4	65.6	68.1	31.9
	2024	65~74세	90.1	9.9	83.8	16.2	56.0	44.0	90.9	9.1
		75세 이상	93.7	6.3	80.5	19.5	46.3	53.7	80.2	19.8
동남권	2014	65~74세	89.8	10.2	81.3	18.7	47.7	52.4	77.9	22.1
		75세 이상	94.3	5.7	77.0	23.0	34.5	65.5	61.7	38.4
	2024	65~74세	90.5	9.5	83.5	16.5	54.5	45.5	89.4	10.6
		75세 이상	95.3	4.8	79.4	20.6	42.6	57.4	73.8	26.2
부산	2014	65~74세	89.9	10.1	80.6	19.4	50.4	49.6	80.5	19.5
		75세 이상	91.3	8.7*	73.9	26.1	37.6	62.4	65.3	34.8
	2024	65~74세	90.5	9.5	83.9	16.1	58.0	42.0	89.5	10.6
		75세 이상	94.6	5.5*	76.7	23.3	45.5	54.5	70.8	29.2
울산	2014	65~74세	91.6	8.4	74.9	25.1	50.3	49.7	69.1	30.9
		75세 이상	90.2	9.8*	70.8	29.2	26.6	73.4	54.9	45.1
	2024	65~74세	92.7	7.3	81.6	18.4	59.8	40.2	89.3	10.7
		75세 이상	96.0	4.0*	71.6	28.4	40.4	59.6	75.9	24.1
경남	2014	65~74세	89.1	10.9	83.9	16.1	43.3	56.7	76.4	23.6
		75세 이상	97.1	2.9*	80.3	19.7	33.7	66.3	60.2	39.8
	2024	65~74세	89.8	10.2	83.7	16.3	49.0	51.1	89.4	10.6
		75세 이상	95.8	4.2*	83.6	16.4	40.2	59.8	76.4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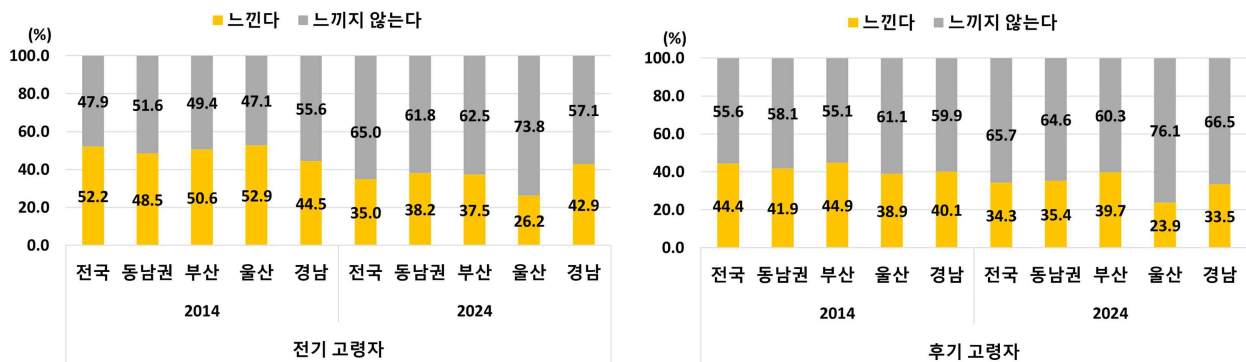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5. 스트레스 정도

'24년 동남권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 38.2%, 후기고령자 35.4%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전기) '24년 동남권 전기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38.2%로 전국(35.0%)보다 3.2%p 높으며, '14년(48.5%) 대비 10.3%p 감소함
 - '24년 동남권 스트레스 비율은 경남(42.9%), 부산(37.5%), 울산(26.2%) 순으로 높음
- (후기) '24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35.4%로 전국(34.3%)보다 1.1%p 높으며, '14년(41.9%) 대비 6.5%p 감소함
 - '24년 동남권 스트레스 비율은 부산(39.7%), 경남(33.5%), 울산(23.9%) 순으로 높음

【그림 Ⅲ-5】 연도별 스트레스 정도



【표 Ⅲ-5】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매우 많이 느낀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전국	2014	65~74세	52.2	7.3	44.8	47.9	41.6	6.2
		75세 이상	44.4	8.2	36.3	55.6	46.1	9.5
	2024	65~74세	35.0	3.7	31.3	65.0	53.7	11.3
		75세 이상	34.3	4.8	29.5	65.7	50.1	15.6
동남권	2014	65~74세	48.5	7.4	41.1	51.6	43.3	8.3
		75세 이상	41.9	7.0	34.9	58.1	49.2	9.0
	2024	65~74세	38.2	3.1	35.2	61.8	51.3	10.5
		75세 이상	35.4	5.4	30.0	64.6	48.4	16.3
부산	2014	65~74세	50.6	6.4	44.2	49.4	40.3	9.2
		75세 이상	44.9	6.0*	38.9	55.1	45.0	10.1
	2024	65~74세	37.5	2.9*	34.5	62.5	49.0	13.6
		75세 이상	39.7	8.1	31.6	60.3	44.1	16.1
울산	2014	65~74세	52.9	8.4	44.5	47.1	38.2	8.9
		75세 이상	38.9	6.2*	32.7	61.1	50.5	10.6*
	2024	65~74세	26.2	3.5*	22.7	73.8	59.5	14.3
		75세 이상	23.9	5.5*	18.4	76.1	44.6	31.5
경남	2014	65~74세	44.5	8.6	35.9	55.6	48.7	6.9
		75세 이상	40.1	7.8	32.3	59.9	51.9	7.9
	2024	65~74세	42.9	3.1*	39.8	57.1	51.3	5.8
		75세 이상	33.5	2.7*	30.9	66.5	53.3	13.2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Ⅳ. 사회참여

1. 삶의 만족도

'25년 동남권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전기고령자(37.3%)가 후기고령자(27.4%)보다 9.9%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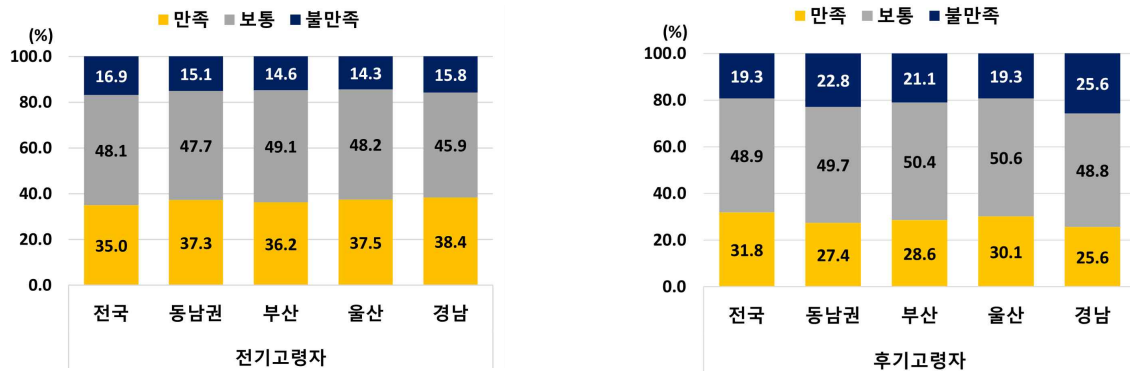
□ (전기) '25년 동남권 전기고령자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37.3%로 전국(35.0%)보다 2.3%p 높으며, '15년(18.6%) 대비 18.7%p 증가함

○ '25년 동남권 전기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은 경남(38.4%), 울산(37.5%), 부산(36.2%) 순임

□ (후기) '25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7.4%로 전국(31.8%)보다 4.4%p 낮으며, '15년(14.0%) 대비 13.4%p 증가함

○ '25년 동남권 후기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은 울산(30.1%), 부산(28.6%), 경남(25.6%) 순임

【그림 N-1】 삶의 만족도(2025)



【표 N-1】 삶의 만족도

(단위: %)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2015	65~74세	23.9	5.8	18.1	52.5	23.6	18.6	5.0
		75세 이상	18.6	3.8	14.8	53.6	27.8	21.4	6.3
	2025	65~74세	35.0	9.5	25.5	48.1	16.9	14.0	2.8
		75세 이상	31.8	5.9	25.9	48.9	19.3	16.0	3.3
동남권	2015	65~74세	18.6	5.1	13.5	57.4	24.0	19.8	4.2
		75세 이상	14.0	3.2*	10.9	62.4	23.6	19.6	4.0
	2025	65~74세	37.3	8.9	28.4	47.7	15.1	11.8	3.3
		75세 이상	27.4	4.7*	22.7	49.7	22.8	19.5	3.3
	부산	65~74세	19.5	5.9	13.6	55.2	25.4	21.3	4.0*
		75세 이상	17.3	4.6*	12.7	57.8	24.9	19.4	5.6*
	2025	65~74세	36.2	8.7	27.6	49.1	14.6	11.2	3.5*
		75세 이상	28.6	4.5*	24.1	50.4	21.1	16.8	4.3*
	울산	65~74세	22.1	6.6*	15.4	53.7	24.2	16.7	7.5*
		75세 이상	15.4	4.9*	10.6*	63.1	21.4	15.7	5.7*
	2025	65~74세	37.5	12.8	24.7	48.2	14.3	12.0	2.4*
		75세 이상	30.1	10.4	19.7	50.6	19.3	14.2*	5.1*
	경남	65~74세	16.7	3.7*	13.0	61.0	22.4	18.7	3.7*
		75세 이상	10.6	1.5**	9.2*	66.7	22.7	20.6	2.2*
	2025	65~74세	38.4	8.0	30.4	45.9	15.8	12.3	3.4*
		75세 이상	25.6	3.9*	21.7	48.8	25.6	23.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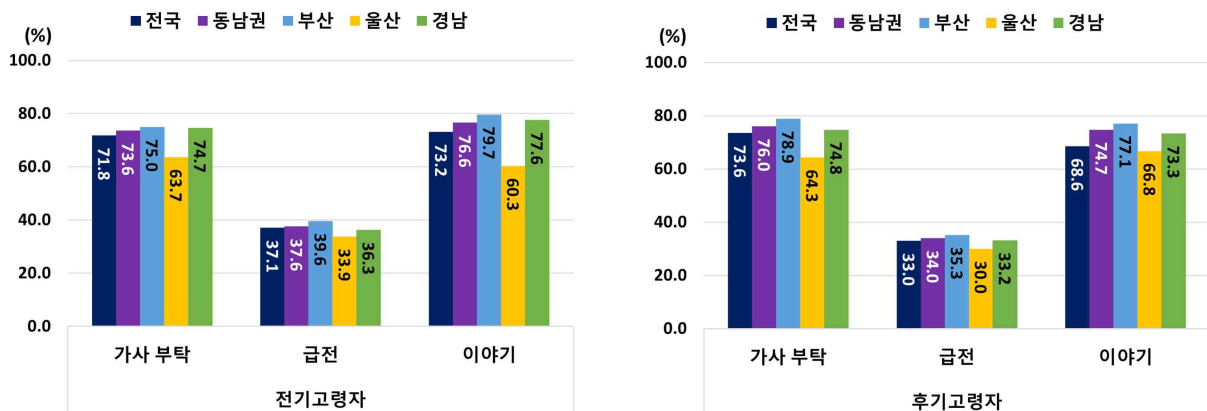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 표시

2. 사회적 관계망

'25년 동남권 고령자는 아플 때 집안일 부탁, 급전을 빌려야 하는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전국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집안일) '25년 동남권 고령자가 몸이 아플 때 집안일 도움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전기고령자 73.6%, 후기고령자 76.0%로 전국보다 1.8%p, 2.4%p 높음
- (급전) '25년 동남권 고령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전기고령자 37.6%, 후기고령자 34.0%로 전국보다 0.5%p, 1.0%p 높음
- (이야기) '25년 동남권 고령자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전기고령자 76.6%, 후기고령자 74.7%로 전국보다 3.4%p, 6.1%p 높음

【그림 N-2】 사회적 관계망(2025)



【표 N-2】 사회적 관계망

(단위: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국	2015	65~74세	74.2	25.8	36.4	63.6	74.9	25.1	
		75세 이상	73.5	26.5	33.3	66.7	69.1	31.0	
	2025	65~74세	71.8	28.2	37.1	63.0	73.2	26.9	
		75세 이상	73.6	26.4	33.0	67.0	68.6	31.4	
동남권	2015	65~74세	68.8	31.2	34.9	65.1	69.1	31.0	
		75세 이상	70.3	29.8	29.8	70.2	66.3	33.8	
		2025	65~74세	73.6	26.4	37.6	62.4	76.6	23.4
		75세 이상	76.0	24.0	34.0	66.0	74.7	25.3	
	부산	2015	65~74세	65.4	34.6	28.9	71.1	64.2	35.8
			75세 이상	70.3	29.8	28.7	71.3	61.8	38.2
		2025	65~74세	75.0	25.0	39.6	60.4	79.7	20.3
			75세 이상	78.9	21.1	35.3	64.7	77.1	22.9
	울산	2015	65~74세	74.5	25.5	44.0	56.0	72.3	27.7
			75세 이상	71.5	28.5	35.9	64.1	64.9	35.1
		2025	65~74세	63.7	36.3	33.9	66.2	60.3	39.7
			75세 이상	64.3	35.7	30.0	70.0	66.8	33.2
	경남	2015	65~74세	71.5	28.5	39.8	60.2	73.9	26.1
			75세 이상	70.2	29.8	29.8	70.2	70.8	29.2
		2025	65~74세	74.7	25.3	36.3	63.7	77.6	22.4
			75세 이상	74.8	25.2	33.2	66.8	73.3	26.7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